
국어 생활로 측정하는 국어 능력

이성영 · 춘천교육대학교

1.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국어 시험들이 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국어 시험을 비롯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언어 영역 시험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밖에도 치의학 전문 대학원, 약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 등 각종의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국어 시험, 공직적성검사(PSAT)를 비롯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국어 시험, 국어과 교사를 선발·임용하기 위한 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비롯한 입사를 위한 각종의 국어 시험, 외국인들의 한국어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시험의 일차적인 목적은 누가 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만약 이 시험들이 피험자들의 국어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여 가려 주지 못하고 있다면 존재 가치가 없게 된다. 물론 이전에 비하면 최근의 국어 시험들은 제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학교에서의 국어 시험은 전통적인 선택형 문항과 함께 얼마간이라도 서

답형 및 수행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국어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능 시험 및 공직 적성검사, 각종의 전문 대학원 시험 등에서 단순 암기력보다는 추론 능력, 분석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 언어적 사고력 측정에 초점을 두는 것도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국어 시험들이 국어 능력을 전적으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그러함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음 일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령 님은 다양한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글을 잘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얼마 전 모 대학 입시 과정에서 출제된 논술 시험 문항을 보고는 50년 동안 글을 써 온 자기로서도 도대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실토한 바 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문장가가 감을 잡기 어려운 평가 문항으로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신경림 님은 유명한 작가다. 그분은 작가이므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 문학적 감수성 혹은 문학적 언어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그분이 쓴 작품이 수능 시험 등에서 자주 출제되었는데, 그 문항을 풀어본 결과 작가 자신도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해당 작품을 쓴 작가도 답하기 어려운 문항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은 국어 능력을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국어 시험은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변별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어떤 사람이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러한 사람을 제대로 변별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어 능력이란 무엇인가

국어 능력이란 국어와 관련되는 제반 능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뜻풀이

는 우리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어 관련 제반 능력’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그 능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흔히 국어 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말이 쓰인다.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능력과 표현된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말로 의사를 소통하는 ‘구어’ 능력과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문어’ 능력으로 나뉜다. 표현 능력에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이해 능력에는 듣기와 읽기 능력이 포함되고, 구어 능력에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문어 능력에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곧 의사소통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힘이 곧 국어 능력이 되는 셈이다.¹⁾

그런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언어 활동을 평면적으로 바라본 양상일 따름이다. 이들 각각의 언어 활동은 여러 층위의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실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다음의 네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왕문용, 2004:93).

①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 규칙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발음과 철자 규칙, 단어 선택, 문장 구조 등)

②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 생각들을 짜임새 있는 담화(텍스트) 덩어리로 엮어 내는 능력

③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 상대나 상황, 목적에 적합한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1) 최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전자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전자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독립시킬 수도 있다.

④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 실제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문법적 능력이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면, 담화 능력은 한편의 말이나 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문장이나 아니면 텍스트(담화)나 하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둘 모두 한 덩이의 언어를 조직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능력이 맥락에 따라 언어 형식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라면 전략적 능력은 실제 상황에 언어적·비언어적으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행 능력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둘 모두 상황이나 목적, 상대 등 맥락에 적절히 부응하는 화용 능력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처럼 국어 능력은 수평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양상별 능력으로 구성되는 한편, 수직적으로는 문장이나 텍스트(담화)를 구성해 내는 조직 능력과 함께 언어 활동의 맥락에 적절히 부응하는 화용 능력으로 구성된다. 특히 화용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말할 수 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에게, 상사나 사장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되는 지식도 포함한다. 약속을 파기하는 방법이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 돈을 빌리거나 부탁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런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별로 불쾌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을 할 줄 몰라서 다 들어주면서도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청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앙금을 남기며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왕문용, 2004: 91~92).

의사소통 능력에는 문법적 능력과 담화 능력을 포함하는 조직 능력뿐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포함하는 화용 능력의 층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용 능력은 언어적

문제 해결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 곧 국어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한다. 외적으로는 언어를 통해서 거절하고 부탁하고 타협하고 비판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기도 하며, 내적으로는 고백하고 성찰하고 표현하여 상처받은 심리를 치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국어 관련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는 모자란 감이 있다.

지금까지 국어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등 언어 활동의 양상별로 구성되는 수평의 축과 문법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등으로 구성되는 수직의 축이 결합된 입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며, 여기에는 언어적인 문제 해결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국어 능력은 이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다루어 온 것들은 모두 인지적인 차원의 것들이나, 국어 능력에는 정의적인 차원도 포함된다. 가령 책을 즐겨 읽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리고 무슨 일이든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임이 분명하다. 곧 국어 및 국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동기, 습관, 가치, 흥미, 의지 등과 같은 정의적인 차원 또한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의적 차원과 비슷하면서도 얼마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언어생활의 윤리성이 있다. 교육은 학생들을 예절 바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으로 기르고자 하는데,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바른 언어생활이다(방인태, 2006:68~70). 말이 거친 사람을 예절 바른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천박한 용어를 쓰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일 리 없다. 이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정직하고, 진심이 담긴 언어는 강한 힘을 가져서 소통

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바로 언어의 힘을 잘 나타내 주는데, 이 속담에 나오는 ‘말’은 바로 진실한 말이다. 따라서 언어의 윤리성도 국어 능력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

언어에 대한 감수성 또한 국어 능력의 중요한 한 부면이다. 흔히 언어를 일상어와 문학어로 나누기도 한다. 사람들 중에는 일상어와는 다른 문학어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이들이 있다. 작품을 즐겨 읽고 잘 이해하여 감상하며, 또한 문학적 언어로 일상 언어생활을 세련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름으로 창작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학적 언어생활이 아닌 일상적 언어생활에서도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도 유독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재치가 번득여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감수성 또한 국어 능력의 한 모습이다.²⁾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국어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언어적 문제 해결력, 국어 및 국어 활동에 대한 정의적 태도, 언어의 윤리성, 언어에 대한 감수성 등 매우 다양한 부면으로 구성된다. 결국 국어 능력이란 임경순(2006:377)이 지적한 것처럼 국어로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뿐 아니라 수행, 윤리적 지혜나 감수성 등과 관련된 지식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지식 일체를 포괄한다. 이 능력은 Steinberg 등이 말한 실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적 지능이란 구체적인 생활 맥락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과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배우게 되는 명제적인 지식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적인 능력은 암묵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을 지녀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객관화하기도 어렵다(이성영, 2003:520).³⁾

2) 민현식(2006:286)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언어적 소양으로 ‘경청’, ‘설득과 논증’, ‘사물에 대한 언어 개념화’, ‘자기 표현’, ‘토의·토론과 사회·협상’, ‘표준어 구사’와 함께 ‘유머 감각’, ‘정직한 언어’를 들었다.

3. 왜 국어 생활로 측정해야 하는가

국어 능력은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능력이며, 이 능력은 실제적 지능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살폈다. 실제적 지능의 성격을 갖는 국어 능력은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교과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더 크다. 국어 능력은 국어 생활을 해 가는 동안에 조금씩 터득해 가는 능력이며, 전 생애를 통해서 형성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국어 능력의 발현 또한 국어 생활 속에서 일어나며, 그러므로 그것의 측정 또한 국어 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이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언어의 윤리성은 국어 생활이 아니고는 측정하기 어렵다. 진실한 말인지 아닌지는 국어 생활 그 자체를 관찰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시험 상황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 수험자들은 누구나 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한 생각이라고 우길 것이고, 그것의 사실 여부는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적 차원의 국어 능력 또한 국어 생활을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 국어 또는 국어 활동에 대한 태도, 동기, 흥미, 가치, 습관, 의지 등과 같은 것들은 국어 활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묻어 있는 것들이어서, 장기간을 통해 관찰하지 않고서는 그 진면목을 확인하기 어렵다.

-
- 3) 우리는 줄곧 국어 능력을 개인 차원의 것으로만 상정해 왔다. 그러나 국어 능력을 집단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국어 능력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글쓰기를 하고, 무엇에 대해 토론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지금 우리 사회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교양서가 잘 팔리는지 자기 개발서가 잘 팔리는지', '우리 사회는 어떤 책을 좋은 책으로 보며(정전, 필독 도서, 교과서 수록 작품), 어떤 것을 읽지 못하게 하는지(금서, 기피 도서 목록)' 등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국어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집단 차원의 국어 능력은 공무원, 교사, 청소년 등과 같은 특수 집단의 국어 능력으로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적 차원, 윤리적 차원과 달리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문제 해결력 등과 같은 인지적 능력은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지적인 차원의 국어 능력 또한 정의적·윤리적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뿐 만족스러운 정도는 결코 아니다. 국어 능력은 생활 능력임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만 오롯이 그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어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국어 규칙과 관련된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얕고 깊이가 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서 시험에서 정답을 고를 수는 있지만, 실제 자신의 국어 생활에서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다르다’와 ‘틀리다’가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고르라고 하면 ‘다른 것’이라고 잘 분간하는 사람이라도 실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을 관찰해 보면 ‘다르다’고 해야 할 자리에서 ‘틀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빚’과 ‘빚’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하는 발음을 잘 들어 보면, [비지만 : 타]와 해야 할 것을 [비시 만 : 타]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시험만을 통해서는 국어 문법과 관련된 능력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문법적 능력은 그나마 측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담화 능력 또한 어느 정도는 기존 시험 체제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논술 시험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둘에 비하면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나 전략적 능력은 측정 가능성이 뚝 떨어진다. 이들 능력은 구체적인 생활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능력인데, 시험 상황에서는 생활 맥락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은 국어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상들이지만, 이들 모두가 국어 시험에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말하기 능력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어 능력이지만, 국내 어떤 시험에서도 말하기를 측정하는 시험은 없다. 국어로 말하는 능력을 타당하면서도 신뢰할 만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구수하게 이야기를 잘 하는지, 누가 순발력과 재치와 유머 감각이 뛰어난지, 누가 사람들의 고민을 제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어서 모든 사람의 상담꾼 노릇을 하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는 안다.

전통적으로 각종의 국어 시험은 거의 읽기 능력만을 측정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읽기 능력 또한 공식적인 시험만으로는 그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 읽기 능력은 문자를 소리로 바꾸는 해독 능력,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 능력, 그리고 스스로 책을 골라서 읽고 즐기는 독서 능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해독 능력은 실제로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함으로써, 그리고 독해 능력은 지문을 주고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서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서 능력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책을 즐겨 읽는지 안 읽는지, 읽는다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는지⁴⁾, 어떤 매체(책, 인터넷 등)로 언제 어디서 읽는지, 어떻게 책을 읽는지⁵⁾, 책을 읽고는 그 내용을 갈무리하여 활용하는지 등과 같은 것은 그 사람의 읽기(독서) 소양의 수준을 보여 주는 좋은 잣대이지만, 생활이 아니고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쓰기 능력도 상황은 비슷하다. 잘 알고 있듯이 수능 언어 영역 시험에서는 쓰기 능력을 선택형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글을 써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에 비해 논술은 직접 글을 쓰게 해서 평가하는 직접 평가라는 점에서 선택형 보다는 훨씬 타당한 평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쓰기 평가에서도 쓰기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주로 문법적 정확성, 논리적 구성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 국어 생활 상황에서 잘 쓴 글

4) 교양을 쌓거나 학업을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또래 문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빠지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도 청소년 독서의 한 모습이다.

5) 겨우 한 편의 글을 읽고 말 수도 있지만 관련되는 다른 책들을 찾아 연관 지어서 읽을 수도 있고, 혼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읽고 토의를 할 수도 있으며, 속독을 하거나 정독을 하면서 혹은 메모를 하면서 읽을 수도 있다.

과 못 쓴 글의 변별에는 문법적 정확성이나 논리적 구성력 이외에도 감동, 설득력, 그럴듯함, 진실성이나 인간미, 필자의 개성 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단 한 편의 쓰기 결과물만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판단할 수 없다. 생활 체험을 공유하거나,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 글을 쓴 필자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썼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감동이나 그럴듯함, 진실성이나 개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상황이나 예상 독자에 따라 그 설득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언어적 문제 해결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제 해결력의 최종 판단은 문제 해결 여부로 내릴 수 있는데, 시험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가령, 설득하기 위한 글을 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설득 당했는지 여부를 시험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어 능력의 정의적이고 윤리적인 점은 말할 것도 없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적 문제 해결력도 그 전모와 진면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어 생활을 통해야만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대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한다. 지식 기반 사회의 힘은 바로 언어 활동에서 온다. 언어 활동이 바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생산하고, 수집·관리·전달·유통하고, 가공·활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노명완, 2007:6). 이러한 언어 활동을 수행하는 힘이 국어 능력이다. 기존의 선택형 시험은 이 중에서 단지 제시(수집)된 지식과 정보의 분석⁶⁾ 능력만을 평가한 셈이다. 이로써 국어 능력의 평가는 국어 생활로 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4.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국어 능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왜 국어 생활로 측정해

6) 이것은 기껏해야 '관리'를 위한 하나의 세부 단계에 해당할 따름이다.

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국어 능력을 국어 생활로 측정한다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측정 혹은 평가⁷⁾를 하는 목적은 크게 선발과 송환(feedback)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평가라고 하면 입학이나 입사 시험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하여 평가를 하는 목적은 선발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를 하는 더 일반적인 이유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학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잘 배웠는지 확인하여 더 나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발을 위한 평가에서는 시험 상황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어 능력을 국어 생활로 측정하는 것은 선발을 위한 시험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송환을 위한 평가에서는 국어 생활을 통한 국어 능력 측정이 가능하고 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국어 능력을 국어 생활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formal) 평가가 아니라 비형식적(informal) 평가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비형식적 평가란 엄격하게 통제된 시험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제 어디에서 평가하는지, 평가의 범위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비형식적 평가이다. 국어 생활을 통한 국어 능력의 측정에서는 이러한 비형식적 평가의 취지를 평가의 주체와 대상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어 생활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국어 생활을 접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국어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국어 생활에 대한 평가 주체가 되며,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평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이며, 측정과 생활이 일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사람들은 국어 생활을 하면서 남

7) 측정과 평가의 엄밀한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여기서는 비슷한 뜻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골라서 쓰기로 한다.

혹은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거나 남의 언어를 자기의 모범 혹은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국어 생활을 통해서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송환하여 국어 능력을 신장해 가는 과정이다⁸⁾. 이렇게 보면 국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평가 과정이 한 구성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이 평가 과정이 잘 작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국어 능력을 잘 신장해 가는 사람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어 능력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생활 장면에서⁹⁾ 자신과 남의 국어 활동을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른 언어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것의 효과는 어떠한지, 배우거나 고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핍으로써 국어 생활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그러면서 국어 능력을 신장해 가는 것이다.

국어 생활을 통해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평가의 중점을 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과 평가란 언어 활동의 결과, 예컨대 써 놓은 글만을 평가하는 것이고, 과정 평가란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어 능력을 과정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국어 생활의 결과가 아닌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그 자체를 평가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어느 한 시점의 국어 생활을 일회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능력은 연속성을 띠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평가 역시 과정을 중시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박인기, 2008:15). 과정을 통해 국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머릿속의 인지적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계

8) 국어 능력은 이런 구조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므로 '실제적 지능'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9) 생활 장면에는 학교생활도 포함된다. 가령 사회 수업에서 동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과학 시간에 유전공학의 공과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 등도 모두 국어 생활의 일종이다.

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하여 갈무리하는 국어 활동의 전체 수행 과정도 평가해야 하며, 나아가 장기간에 걸친 국어 생활의 변모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국어 능력은 국어 생활을 통해서 비형식적 평가와 과정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형식적 평가보다는 비형식적 평가가, 결과 평가보다는 과정 평가가 국어 능력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송환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밝힌 것처럼 국어 생활을 통한 국어 능력 평가는 송환을 위한 평가와 잘 어울린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 생활을 통한 국어 능력 평가가 선발을 위한 평가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국어 생활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수집·정리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것으로써 선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가령 독서한 이력을 신빙성 있게 알려 주는 독서인증제의 결과, 일기장 모음, 독후감 노트, 집필이나 창작 모음집,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 카페나 토론방 활동 흔적들, 투고 및 댓글 이력, 토론 대회 참여 경험 등은 모두 국어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이들을 선발을 위한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신입생 선발 제도도 따지고 보면 국어 생활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국어 능력 평가와 그 취지가 같다. 이런 취지를 더 넓히면 굳이 문서 자료로 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국어 생활에 대한 관찰만으로도 국어 능력의 질과 수준을 판단하여 선발 시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발은 입학이나 입사와 같이 새로운 세계(제도)로의 진입만이 아니라 같은 세계(제도) 안에서의 선별을 위한 것도 포함한다. 같은 회사 안에서의 승진이라든지, 학교에서 능력별 모둠 편성을 위한 선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의 일상의 국어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선발(승진, 편성)에 필요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현행의 시험들이 국어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국어 생활로 측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국어 생활을 통한 국어 능력 평가는 학교 국어 시험을 비롯한 형식적 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국어 생활을 통해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공식적인 시험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 평가에서도 국어 생활을 통한 평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학교 수행평가는 실제성 강화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어 생활을 통한 국어 능력 측정이라는 개념을 원용하면, 수행평가의 과제를 억지로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실생활에서의 언어적 문제 해결 상황에서, 국어 생활 속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어 능력 평가의 실제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길이며,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며, 참평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어령 같은 문장가를 쓰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신경림 같은 작가를 문학적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제대로 변별해 내는 길이다.

참고 문헌

- 노명완(2007), '미래사회에서의 전문 활동과 국어 능력',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pp.1~22.
- 문영진(2008),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읽기 및 쓰기 문항에 관하여', "국어교육학연구" 31, 한국어교육학회, pp.5~32.
- 민현식(2006), '국어교육에서의 지도력(리더십) 교육 시론', "화법 교육의 문제", 한국화법학회, pp.231~293.
- 박인기(2008),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학연구" 32, 국어

- 교육학회, pp.5~31.
- 방인태(2006), ‘도덕적 인간 육성과 국어 능력’,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pp.57~77.
- 왕문용(2004) ‘국어 능력과 삶의 질’,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pp.79~101.
- 이성영(2003), ‘실용 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어문연구” 3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509~532.
- 임경순(2006),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철학적 기반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pp.365~388.
- 황혜진(2007), ‘독서생활사 연구를 위한 시론-연구 방향과 자료 기술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399~434.